



가톨릭병원 운영에 대한 소고

윤 경 철 신부

〈메리놀병원장〉

가톨릭병원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로 조직과 운영적인 면, 선교와 사회 봉사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서술해 보겠다.

조직과 운영적인 측면

어느 기업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그 단체의 생명은 조직력에 있다고 보겠다. 조직의 운영이 진진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장래와 성패를 기대할 수 있듯이 가톨릭병원의 조직이 단일화되고 활성화 될 때 국민 의료에 미치는 영향도 기대할 수 있고 가톨릭 의료기관이 크리스찬 공동체로서 시대에 증가하며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병원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전국 가톨릭병원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톨릭병원 합동관리 (Catholic Multi-Institutional Arrangement) 체제를 구축하여 한국가톨릭 병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집약하여 안고 그 방향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가톨릭 병원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기구의 확대와 운영방안의 세분화로서 교구적인 관점을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별 합동 관리체제를 구성하여 가톨릭 의료기관 사이의 조화와 협조로써 공동 구매관리제도나 한정된 의료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시설 자문에 의한 공동 이용 내지 새로운 관리 기법 및 운영에 대한 정보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줄로 믿는다. 또 한국 의사협회나 행복한 가정운동과 같은 특수 목적을 위한 위원회들도 여러 분야별로 확대 구성하여 크리스찬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수한 사업의 확대에도 주력하여 국민 의료의

선봉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 병원협회가 주관이 되어 대 정부 보건정책 및 의료체계에 대한 가톨릭 병원군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지역 및 단일 병원들이 지역사회 복음전파 이념 실현과 타 의료기관들의 경쟁 속에서도 양질의 진료제공과 운영 합리화를 꾀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 또 각 재단이나 수도단체 병원들의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되어져야 하며 나아가 가톨릭 의료인들의 의료 사고에 대한 대처로서 가톨릭 의료사고 보험 결성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가톨릭 병원협회는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설정하여 가톨릭 병원군으로서 또는 지역단위별로 강연회나 연구논문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전문 종사원뿐 아니라 일반 종사원들의 교육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운영 관리면에서도 실질적인 발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조직을 통해 가톨릭 병원이 나아가야 할 몇몇 과제들의 계획에서부터 효과에 이르기까지 평가 기구를 설정하여 이념이나 사업 또는 교육적인 면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교와 사회 봉사적인 측면

국가나 여러 단체가 의료사업을 대규모로 하면서부터 교회 의료사업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병원이 설립된다 해도 교회는 이 사회 구조안에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이제 의료기관은 과거처럼 의사의 기술과 의약품

만으로 운영될 때는 지났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비한 대규모의 조직이 되었다. 교회 병원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회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 교회성은 민족, 교파를 초월해서 잉태된 생명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표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사회의 생존경쟁에서 낙오된 자, 고아, 노약자, 특히 임종하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정밀한 기계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진료의 과정 안에는 사람들이 냉혹해져 버리고 생명을 위한다는 의료기관의 분위기는 비인간적인 때가 많다. 이런 분위기에 친절, 헌신, 정성, 생명에 대한 믿음과 희망 등을 심는 것이 의료기관의 교회성이라 생각한다. 교회 의료기관의 역할은 양질의 의료를 정직하게 공급하는데도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 의료기관도 경영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적정 이윤을 내어야 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Project 를 개발하여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가톨릭 병원협회가 하나의 성숙된 군으로서 외적인 조직을 통한 관리적인 면에도 중요하지만 가톨릭 병원 설립이념에 입각한 크리스찬 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나 국민들에게 종교적인 산 증거가 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톨릭 병원은 교회 사명과의 일치와 가톨릭 가치관에 대한 동질성에 두고 그 안에 보편성, 사랑의 실천 장소, 희망의 장소, 봉사의 장소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특수성 안에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참여하는 일들은 무엇보다 인간 생명

의 존엄성에 대해 수태부터 죽음까지 생명 존귀함의 옹호자이며 보호자 역할을 하고 인간의 전인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선 돌봐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산아제한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원칙적인 문제의 귀결을 지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병원을 통한 선교 목적이나 인간존엄성 지향을 위해 종교적,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또한 가톨릭 병원의 임무 임에는 틀림없다.

사회봉사적인 측면에서 가톨릭 병원군은 특수 영역의 진료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결핵 요양원, 내 환자 진료소, 정신박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장기적인 의료 계획과 이들의 사회 복귀 문제에 까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전국 무의촌 지역이나 낙도들을 대상으로 Health Network System 을 통해 지역적인 의료 분배와 더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가톨릭 의료 공제회와 같은 기구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원목활동의 활성화나 Hospice care 같은 특수 봉사활동들을 개발하여 월보나 회보를 통한 홍보 및 상호교류로 단위 병원이나 지역 단위별로 개발 실시토록 하고 세미나나 총회때에 아이디어 개발이나 사례발표들에 대한 시상을 하여 내실과 발전을 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가톨릭 병원군은 가톨릭이라는 공동체 속에 의료기관 합동관리(Multi Institutional Arrangement)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속에 상호 발전을 위한 상위조직 기구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의 한국 가톨릭병원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